

지역인재 양성 '오픈 캠퍼스' 확대

농어촌공사·aT·농촌경제연구원 등 올 12월 첫 도입 전남대·조선대 등 지역 청년들 업무 체험·학점 부여도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대학이 우수 인재를 함께 양성하는 '오픈 캠퍼스' 참여 기관이 올해 9곳으로 확대됐다.

3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농업 관련 기관들이 올해 처음 '오픈 캠퍼스'를 신설한다. 이로써 '오픈 캠퍼스' 과정을 개설한 혁신도시 기관들은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오픈 캠퍼스'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에 맞춰 혁신도시 기관에 적합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

관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어 대학생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4개 기관과 나주시,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빛가람 미래 농업 인재육성 과정'을 지역 대학 방학기간인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한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달 26일 전남대·조선대·동신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분야 공공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오픈 캠퍼스 수강생은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 인원 등을 고려해 전남대(20명), 조선대(15명), 동신대(5명) 등 40명 안팎이 될 예정이다.

오픈 캠퍼스는 혁신도시 농업 기관별 주요사업 특장점 ▲취업설명회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과 농업정책 특장 ▲기관

주요현장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생은 나주 혁신도시 농어촌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에서 특장 및 토의 수업에 참여한 뒤 주요 현장견학을 할 예정이다. 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각 기관별로 발행한 수료증을 받고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점(1학점)을 부여받는다. 40시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 80% 이상 출석하고 개인·조별과제 평가 기준을 넘기면 수료할 수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빛가람 미래 농업 인재육성 과정'은 농업기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실무중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본격적인 진로탐색과 설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사는 내년부터 운영기관과 참여대학을 확대 운영해 오픈 캠퍼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오픈 캠퍼스는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기

관이 상생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공공기관과 농업분야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올해는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한 한국전력거래소 '빛가람학점과정'과 한전 '에너지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한전 KDN '소프트웨어 교육강사 양성과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일·학습 병행 체험형 인턴과정' 등이 진행됐다. 지난 10월에는 전남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현장 영상제작 강의'를 함께 열며 오픈 캠퍼스를 시작했다. 전남대는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겨울학기 교과과정을 개설하고, 2020년부터는 신문방송학과 정규교과과정으로도 편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한국전력거래소 등 오픈캠퍼스 기존 운영 기관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설 기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농산물 유통정보', 굿 콘텐츠서비스 대상

다양한 정보 제공 등 인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굿 콘텐츠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사는 'KAMIS 농산물 유통정보 모바일 서비스'를 출품해 대상작에 선정됐다.

'KAMIS'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모바일 화면디자인 및 UI 개선 ▲농축수산물 지식백과 '식재료아카이브' 신설 ▲제철농수산물 레시피 영상 제작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알뜰장보기 카드뉴스 제공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굿 콘텐츠서비스 대상'은 굿 콘텐츠서비스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등 콘텐츠 품질, 이용 편의성, 서비스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 해 동안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기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급이사는 "앞으로도 KAMIS를 통해 국민의 생업과 가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나아가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목포대,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대상

제5회 2019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일시 2019. 11. 27(수) 10:00~17:00 대회장소 목포대학교 빛가람관



한전KDN은 최근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열어 대학·고교생 22개팀을 시상했다. (한전KDN 제공)

전남대·목포해양대 최우수상

목포대 학생들이 한전KDN이 주최한 '2019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 대상을 차지했다.

한전KDN은 지난 달 27일 나주 혁신도시 분사 빛가람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소프트웨어 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팀을 시상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5회째인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육성과 우수작품에 대한 창업연계 지원을 목적으로 한전KDN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대학생 부문 대상은 목포대 'Amadoor' 팀이 선정됐다. 이 팀은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범죄로부터 주거지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출품했다. 전남대 '포니체인' 팀의 '블록체인과 태양광을 이용한 유료 충전 서비스'와 목포해양대 '카르페디엄' 팀 '전기자동차 충전소 불법주차 감

시 시스템'은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마이스터고 부문에서는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GATE 팀) '전기 발전 방법 및 발전량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과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고(두뇌는 국산이지만 언어는 수입입니다 팀) 'AI를 이용해 적정에너지 사용량과 예측 전기세를 알려주는 앱'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광주·전남지역 30여개 대학과 6개 마이스터고에서 총 45개(대학생 11개·고등학생 34개) 작품이 접수됐다. 1차 심사에서 총 24개(대학교 16개·마이스터고 8개)가 선정된 뒤 지난 27일 2차 현장 심사를 통해 대학생 부문 대상 1팀·최우수상 2팀·우수상 3팀 등 16개팀과, 마이스터고 부문 우수상 2팀·장려상 4팀이 상을 받았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에 대한 발굴 및 우수작품에 대한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 식품소비행태 조사 발표 농촌경제연구원 6일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오는 6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생산자와 관련 업계, 담당 부처에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발표대회를 열고 있다. 대회에서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3337 가구, 성인 6176명, 청소년 6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계임 KREI 선임연구위원의 '2019 식품소비행태조사의 표본 특징과 조사 개요'를 시작으로 김상호 KREI 부연구위원 '가구 내 식품 소비 및 식생활 행태 분석', 강해정 전남대 교수 '친환경식품 인식과 구매행태 분석', 안병일 고려대 교수 '가구의 식품구매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효과 분석' 발표 등이 이어진다.

'외식 소비'를 주제로 한 홍연아 KREI 부연구위원 '소비자의 외식 행태 및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실태 분석' 발표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농소모(KREI 식품소비트렌드 모니터)'가 바라본 식품소비트렌드 발표도 행사를 마무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3일 우루과이에서 근무하는 한전KPS 직원들이 우루과이 티그레복합화력발전소 O&M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한전KPS, 남미 우루과이 정비 사업 본격 가동

최대 8년동안 운영

한전KPS가 남미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3일 한전KPS는 남미 남동부에 있는 우루과이에서 장기 운전 및 정비(O&M)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 11월 준공된 우루과이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에서 최대 8년 동안 발전소 전체 설비에 대해 운전 및 정비를 맡아 운영한다. 이로 인한 예상 매출은 연 170억원에 달한다.

한전KPS는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O&

M 사업과 관련해 발전소의 가스터빈 제작사인 독일 '지멘스'사와 장기계약(LTSA)을 직접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3년마다 가스터빈 각 호기의 계획예방정비공사를 시행하며 120억 원 가량의 추가 매출도 가능할 것으로 한전KPS 측은 내다봤다.

이번 사업은 한전KPS의 남미 O&M시장 첫 진출 사례이다.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요르단, 마다가스카르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에서 장기 O&M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나, 남미 시장에서는 콜롬비아 테르모타사세로II 화력발전소 시운전 등 단기 프로젝트

의 수행 경험에 머물렀었다.

한전KPS 관계자는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 시운전 시 발전대기율 98% 이상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려 현재 불안정한 우루과이 전력공급을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성과를 통한 우루과이 전력청의 신뢰를 토대로 남미시장 확대 및 사업다각화의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티그레 발전소는 우루과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총 설비용량 531MW의 복합화력 발전소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Style

Classic Style

Mediterranean Style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